

연구논단

- 조피볼락 수급문제의 원인과 시사점

연구논단

조피볼락 수급문제의 원인과 시사점

이 창 수* · 김 정 협**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조피볼락 수급의 문제점 |
| II. 조피볼락의 수급동향 | 1. 조피볼락 수급문제의 원인 |
| 1. 생산 및 수입동향 | 2. 조피볼락 양식의 문제점 |
| 2. 가격동향 | IV. 결론 및 시사점 |
| 3. 유통 및 소비동향 | 1. 결론 |
| | 2. 시사점 |

I. 서론

우리나라 양식 어류의 총 생산량은 약 10만 톤 수준이며, 이 중 조피볼락이 25~3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조피볼락을 양식하는 어가는 2,000어가 이상으로 양식어종 중 가장 많은 어업인 수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조피볼락을 본격적으로 양식한 것은 정부의 기르는 어업 육성 정책이 시행되었던 1990년대부터이다. 당시 정부는 다른 어종에 비해 병해에 강하고, 성장기간이 짧으며,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월동도 가능한 조피볼락 양식을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양식 어가들이 1990년대부터 동 어종을 양식하면서 단기간에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갑작스런 생산량 증가는 오히려 조피볼락 가격을 큰 폭으로 급락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경영채산성이 열악했던 많은 수의 양식 어가들이 수급조절의

* 한국어촌어항협회 연구원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실패로 인해 도산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대부분의 양식시설은 소유주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존속되었는데, 이는 양식어업인들에게 대체어종이나 다른 생업을 찾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고, 신규 진입자에게는 정부의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선형적으로 가격 폭락의 신호(sign)를 포착하더라도 양식어업인 스스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은 거의 없었다.

결국 조피볼락의 수급 불안정은 양식 어업인들의 경영 악화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의 양식에도 악 영향을 미쳐 중국에는 우리나라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질적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피볼락 양식에 관측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양식어업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稿)에서는 조피볼락의 수급동향 및 동 어종의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는 원인을 분석한 후, 끝으로 우리나라 조피볼락 양식 산업의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Ⅱ. 조피볼락의 수급동향

조피볼락의 공급은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수출이 전무(全無)한 조피볼락의 경우 국내 공급 증가는 국내 시장의 확대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수급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가격변동을 가져왔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조피볼락의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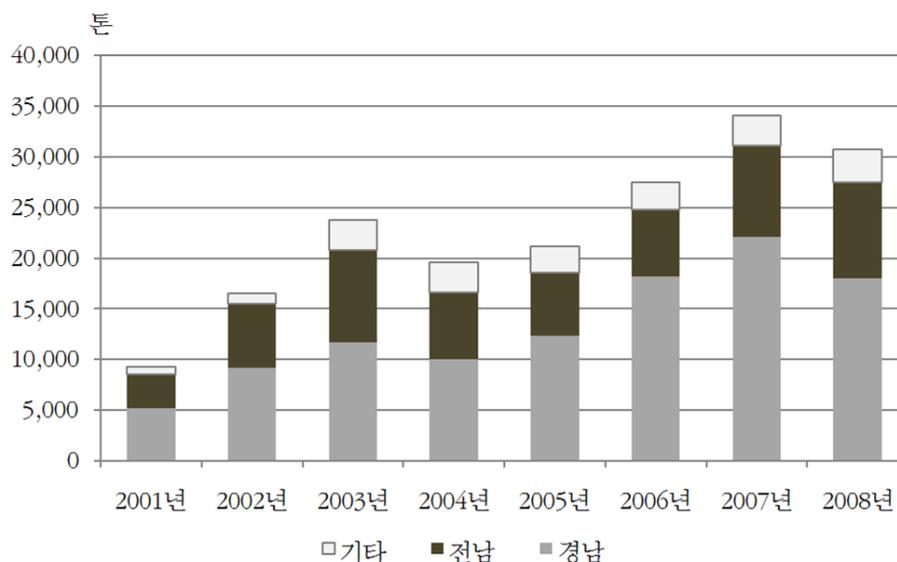
1. 생산 및 수입동향

가. 생산동향

1990년대 후반의 양식시설 증가로 인하여 조피볼락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1년에는 1만 톤이 채 되지 않았던 생산량이 2007년 이후 연간 3만 톤 규모로 확대되었다.[그림 1 참조]

지역별로는 경남의 생산량이 2008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58.5%로 가장 많았으며¹⁾, 다음으로는 전남이 30.9%, 충남과 경북 등 기타지역이 10.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의 생

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변화를 결정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 한편 전남의 경우 생산량의 증가가 크지 않은 반면 기타지역의 생산량은 경북의 생산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 연도

[그림 1] 조피볼락의 지역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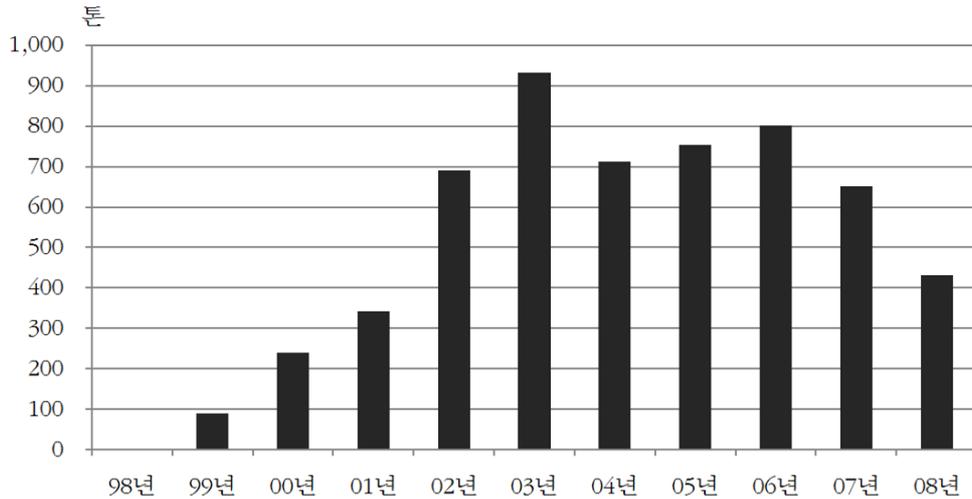
나. 수입동향

조피볼락의 수입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수입량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 2003년 역대 가장 많은 900여 톤이 수입된 이후 약 700톤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최근 들어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감소세는 국내 조피볼락 생산량 증가와 함께 원화 약세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중국 정부는 대일(對日) 및 대한(對韓) 수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어 양식을 장려하고 있는데, 특히 조피볼락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양식되고 있다.

1) 경남의 조피볼락 생산량은 전남의 두 배에 달하지만 생산자 수는 전남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경남의 어장환경이 전남에 비해 조피볼락 양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경남은 전남에 비해 수심이 깊어 단위 시설 당 용적이 크고, 수온여건이 좋아 조피볼락의 성장기간이 2~4개월 정도 빠르다.

실제 수입량 규모는 우리나라의 전체 생산량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최근 중국의 조피볼락 양식 동향으로 볼 때 향후 수입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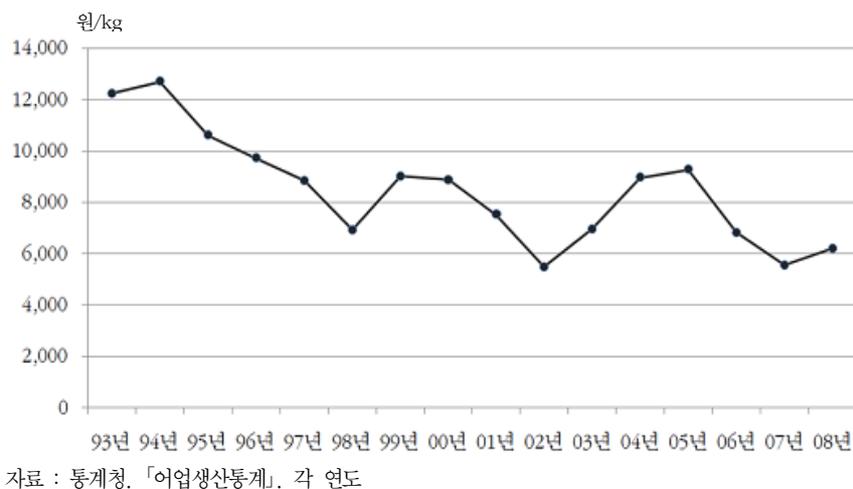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각 연도

[그림 2] 조피볼락의 연도별 수입량 추이

2.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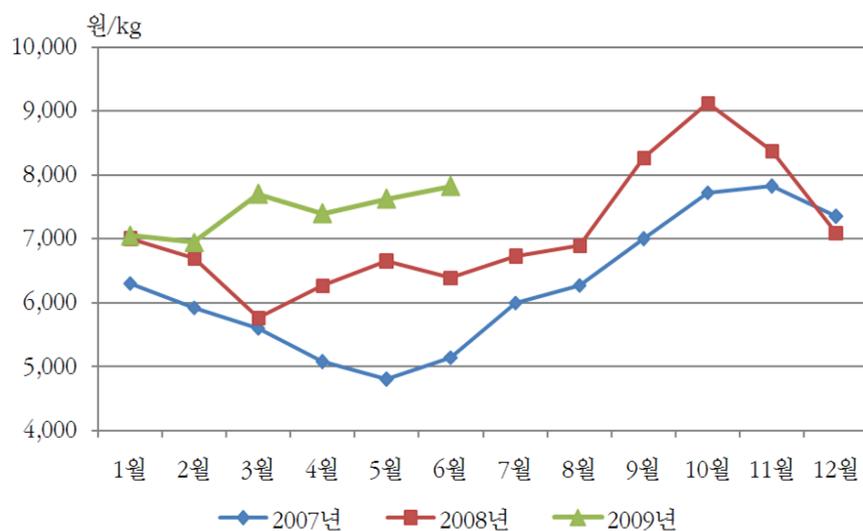
조피볼락의 가격은 1990년대 후반부터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다. 실제로 1990년대 초·중반 1kg 당 12,000원을 호가하던 가격은 이후 크게 하락하여 2008년에는 절반 가격 수준인 6,000원선에서 형성되었다.

또한 조피볼락은 넙치, 참돔, 농어 등 다른 양식어류에 비해 가격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피볼락 가격은 4~5년을 주기로 상승세와 하락세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락은 양식어업인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3] 조피볼락의 연도별 가격 추이

한편 연중 산지가격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입식기(5~6월)를 전후하여 하락세와 상승세가 반전됨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즉 조피볼락의 가격은 연말부터 입식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연말 전까지 상승세로 반전되는 추이를 반복하고 있다. 한편 조피볼락의 가격은 연중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의 가격차가 최대 3,000원 정도로, 연중 가격 등락율이 30~40%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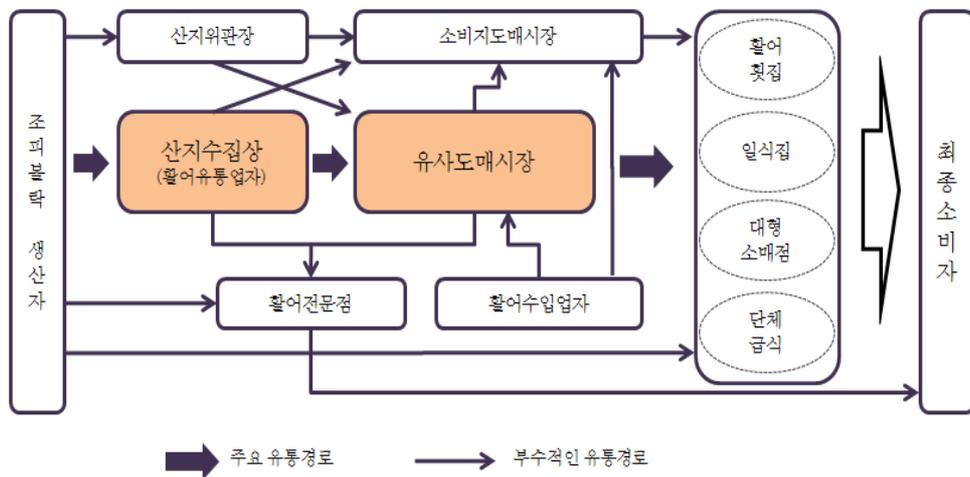


주 : 통영지역, 미당 500g 기준
 자료 : KMI수산업관측센터, 「어류수산물관측」, 각 월호

[그림 4] 조피볼락의 월별 산지가격 추이

3. 유통 및 소비동향

조피볼락의 유통은 활어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넙치, 참돔, 숭어 등 일반 활어의 유통 패턴과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즉 산지 활어 유통업자인 산지수집상을 통해 인천, 하남, 부산 등과 같은 유사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조피볼락의 유통은 넙치 등 일반 활어와는 달리 조피볼락 회무침 전문점인 '강릉집'과 같은 형태의 전문점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며, 산지 횡집을 통한 소비 비율이 다른 어종에 비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그림 5 참조]



주: 활어전문점은 '강릉집'과 같이 조피볼락을 주 메뉴로 하는 업체를 말함

[그림 5] 조피볼락의 유통경로²⁾

조피볼락의 소비형태 역시 유통과 마찬가지로 일반 활어소비의 범주에서 이해가 되는데, 일반 활어와 마찬가지로 횡감으로 많은 부분이 소비되고 있다. 다만, 조피볼락은 횡감용 외에 탕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다른 어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조피볼락 회무침 전문점의 등장으로 소비행태가 다른 어종에 비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타 어종에 비해 수율이 낮고 살색이 어두워 횡집은 물론 일반 소비자의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이남수, “양식 조피볼락의 수급불균형과 소비구조 변화”, 월간해양수산 통권 제271호, 2007. 4,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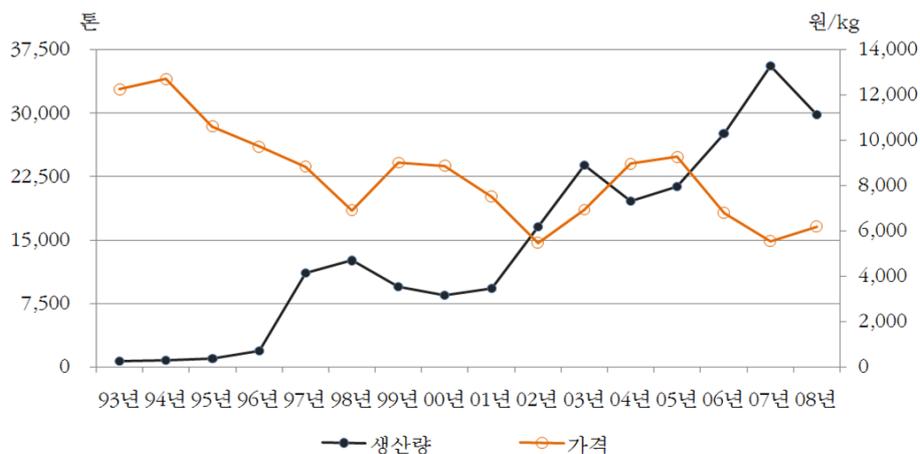
Ⅲ. 조피볼락 수급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피볼락은 4~5년 주기로 수급문제를 야기하였다. 특히 급격한 가격 등락은 양식어업인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조피볼락 수급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조피볼락 양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조피볼락 수급문제의 원인

가. 입식량 조절 실패에 따른 공급 조절 실패

조피볼락의 가격 불안정성은 외부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기 보다는 [그림 6과 같이 생산과 관련된 내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³⁾. 실제로 조피볼락 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태풍, 적조와 같은 재해가 2003년 외에는 크게 없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조피볼락 가격 불안정성의 원인은 공급조절의 실패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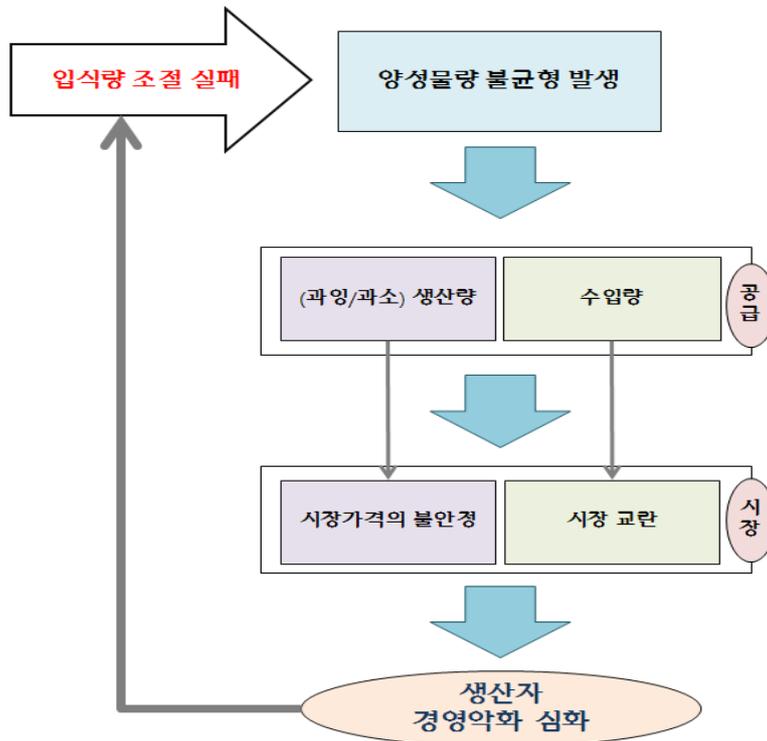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 연도

[그림 6] 조피볼락의 생산량 대 단가 추이

3) 넙치의 경우 식품안전성 문제에 대한 언론매체의 오보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는 등 외부요인에 의해 가격 불안정성이 야기된 사례(2005년 하반기 ~ 2006년 초)가 있다.

조피볼락의 공급조절 실패는 악순환되고 있는 생산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어류양식의 생산구조는 일반적으로 입식 → 양성 → 출하의 3단계로, 조피볼락 양식은 이 중 입식량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급조절에 실패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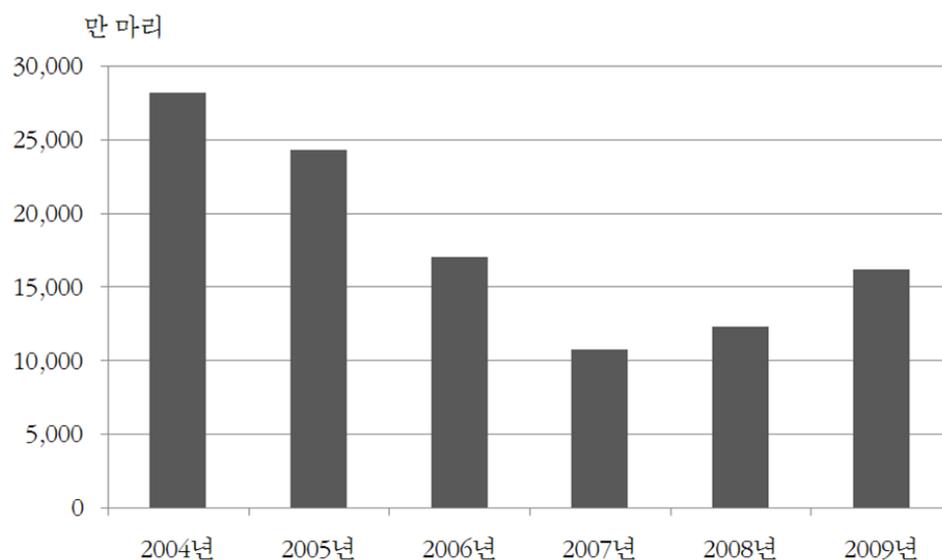


[그림 7] 조피볼락 수급 불균형 악순환 구조

생산 시설의 규모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조피볼락 양식어업인들은 소규모 시설을 경영하고 있어 자금회전율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아 계획성 있는 생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급조절 실패에 따른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는 양식어업인들이 과도하게 많은 양의 치어를 입식하여 크기별 양성물량 분포 구조가 왜곡되어 버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양성물량 분포 구조의 불균형은 곧 특정시기의 초과 공급으로 이어져 시장가격 하락을 부추겨 왔다. 가격 폭락 이후 1~2년간 양식어업인들의 경영악화로 입식량이 줄어들어 시장가격은 다시 상승하였지만 대다수 어업인들은 양성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여서 경영은 기대하는 만큼 개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양식어업인들은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해 또 다시 과도한 입식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 것이다.[그림 7 참조]

한편 최근 6년간 조피볼락 치어 입식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시설 피해 후 시설복구와 추가입식으로 인해 2004년과 2005년의 입식량은 2억 마리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이 시기의 대량입식은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 한편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입식량은 2007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는 입식량이 1억 5,000만 마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생산현장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적정 입식 규모인 1억 2,000만 마리를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9년의 입식량 증가는 이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2011년에 접어들어 또 다시 수급불균형을 초래하여 가격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자료 : 통계청, 「어류양식현황조사」, 각 연도, 2008~2009년은 KMI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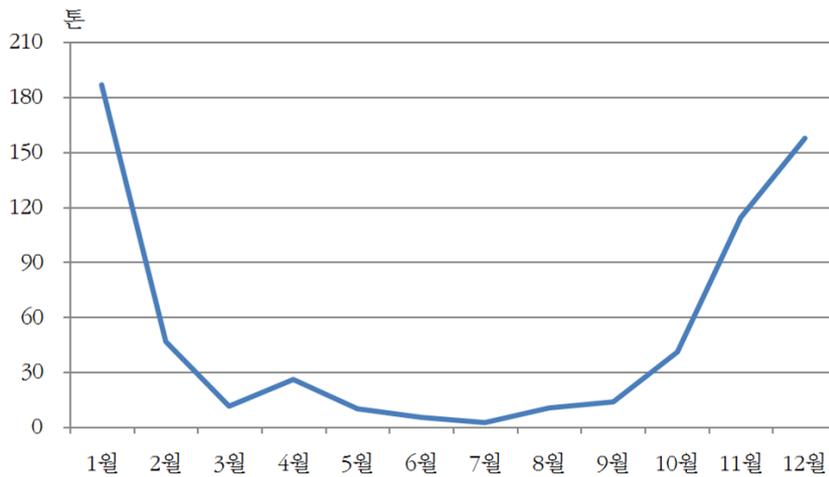
[그림 8] 조피볼락의 연도별 입식량 추이

나. 특정시기 수입 집중화에 따른 시장 교란

조피볼락의 수입량은 전체 생산량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월별로 살펴보면 [그림 9]와 같이 추세 커브가 U자 형태로 특정 시기(연말과 연초)에 수입이 집중됨을 볼 수 있다⁴⁾. 즉 조피볼락 수입은 10월 ~ 익년 1월까지 연간 수입량의 70% 이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추세는 월별 수입량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수입된 조피볼락은 국내 반입 후 곧바로 도매시장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자칫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며, 실제 그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통인과 생산자 간에 정보의 양이 크게 차이 나는 시장일수록 그 영향은 더 커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입 조피볼락에 의한 시장 교란 현상은 특히 조피볼락의 가격이 시기적으로 하락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하락폭을 더 키우고, 그 후 2~3개월간 수급 불균형을 유발하는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 : 최근 3년(2006~2008) 월별 평균 수입량임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각 연도

[그림 9] 조피볼락의 최근 3년 월별 평균 수입량 추이

2. 조피볼락 양식의 문제점

거의 대부분의 양식업은 바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생산 활동을 함에 있어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특히 어류양식의 경우 조피볼락 양식을 포함한 가두리식 양식이 육상수조식 양식이나 축제식 양식에 비해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넙치 양식과 같은 육상수조식의 경우는 고수온, 적조 등 자연 환경에 대해 얼마간 인위적인 조절이 가능한

4) 조피볼락의 수입은 거의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며, 시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조피볼락의 포란기(抱卵期)가 우리나라에서는 3~4월 중순경인데 반해 주 수입국인 중국은 조금 빠른 2월 중순부터 시작됨에 따라 2~5월, 고수온기인 6~9월에는 수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데 비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가두리식 양식은 인위적인 요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피볼락 양식은 자연환경의 제약뿐 아니라 몇 가지 내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신규진입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 둘째, 변동성이 큰 종묘생산, 셋째, 생산자와 유통인 간 정보비대칭,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자 선호도이다.

가. 신규진입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

조피볼락은 비교적 병해에 강하고 월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식 경영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은 조피볼락 양식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양식어업인이 신규 양식품목을 선택할 때 가장 손쉽게 선택해 버리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즉 양식 어종 선택 시 기술력 또는 재정력 등의 진입장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피볼락 양식 시설이 증가하였으며⁵⁾, 결국 공급조절에 실패를 불러오는 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나. 종묘생산의 변동성

어류 양식의 시작은 종묘, 즉 치어 생산에서 시작된다. 특히 조피볼락 양식에서 종묘 생산량은 일부 치어방류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식되는 경향이 있어 계획적인 종묘 생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식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루어볼 때 종묘 생산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현재 조피볼락의 종묘 생산은 육상의 종묘배양장과 축제식양식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축제식양식장에서 조피볼락 종묘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치어 생산능력 면에서 육상배양장이 약 1억 ~ 1억 5,000만 마리, 축제식양식장이 약 5,000만 마리로서 우리나라 치어생산 가능량은 연간 1억 5,000만 ~ 2억 마리에 달한다. 게다가 흑산도 일부지역에서는 자연산 치어를 입식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간 입식 가능량은 더욱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양도 양이지만 그 변동 폭에 있다. 특히 축제식양식장에서의 종묘생산은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5) 조피볼락의 양식수면적은 2007년 기준 177ha로 가두리 양식 수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옥영수 외, 2007.).

다.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

조피볼락 양식은 소규모 양식어업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생산자보다 대규모 유통인의 가격 협상력이 훨씬 크다. 더 엄밀히 말하면 생산자의 가격 협상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는 조피볼락 양식이 전국 연안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어업인들 간 정보의 상호 교환이 미미하고 다른 품목에 비해 어업인 조직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양식어업인이 출하 의사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구분된 생산량, 양성량, 시장상황, 수입량 등의 정보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반면에 유통인은 다양한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양식어업인과의 가격 협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 소비자의 낮은 선호도

특정 어류의 본격적인 양식은 공급과 시장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시장가격의 하락을 가져온다. 조피볼락의 시장가격 역시 양식 초기(初期)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가격하락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활발하게 하여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순기능도 있었으나 일부 소비자들에게 조피볼락은 저가어(低價魚)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기능도 발생하였다.

게다가 소비형태가 주로 활어회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횡집 수요의 감소는 큰 문제인데, 이는 횡집 등에서 조피볼락이 다른 품종에 비해 수율이 낮아 조리는 번거로운 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반 소비자들의 조피볼락에 대한 저가어(低價魚) 인식과 횡집 등에서의 선호도 감소는 조피볼락 소비 측면에서의 큰 문제이다.

IV.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조피볼락은 비교적 단기간에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양식어업인이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스스로 출하조절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2000년대 들어 4~5년을 주기로 가격이 폭락하는 등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피볼락 양식에서의 수급문제는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내부 생산구조의 심각한 왜곡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피볼락의 수급문제는 첫째, 구조적으로 입식량 조절 실패로 인한 공급조절 실패에 기인하였다. 입식량 조절 실패 → 양성물량구조 왜곡 → 초과 생산 → 가격 폭락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양식어업인들의 양식 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 양식어업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정부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극복하기 힘들어 보인다.

둘째, 연중 가격의 등락폭이 큰 원인으로는 연말과 연초에 집중되는 수입조피볼락에 의한 시장교란이다. 국내 생산에 의해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특정시기에 집중된 수입은 단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수급문제 발생의 주원인 외에 이를 발생시키는 배경으로 조피볼락 양식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피볼락 양식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소규모 양식어업인의 참여가 용이

둘째, 종묘생산의 큰 변동성

셋째,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넷째, 소비자의 낮은 선호도

여기서 종묘생산의 문제는 어류양식 전반에,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의 경우는 활어유통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시사점

앞서 조피볼락의 수급 문제와 그 원인 그리고 조피볼락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입식량 조절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종묘생산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율적인 종묘생산량 조절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일부 무임승차자(free-rider), 자체 자조금 부족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율적인 노력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유통협약⁶⁾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류양식의 성격상 공급조절이 종묘의 입식단계에서 이루어진다면 매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각 개별 어업인의 입식량을 제한하는 입식량 쿼터제도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정부에서 총입식허용량을 설정한 후 개별 양식어업인의 시설량에 따라 입식량 쿼터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급조절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양식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규모 양식어업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양식업의 구조는 결국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 양식업에 대한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고, 자금 마련과 정책 시행시기를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 효과를 기대해 봄직 하다.

셋째,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생산과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측사업을 통해 일련의 정보를 생산하여 각 어업인들에게 확산하고는 있으나 그 대상은 넙치와 조피볼락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조피볼락의 관측기간은 3년 정도로, 넙치 양식어업인에 비해 정보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는 조피볼락 양식어업인의 특성상 경영이 비체계적이고, 관측정보가 전체 가두리 양식어업인에게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수의 양식어업인이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단순히 정보의 확산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피볼락은 가두리에서 양식되기 때문에 참돔, 농어, 송어 등 다른 어종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양식어종 선택, 출하 시기 결정 등에 대해 체어종들의 정보가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측사업의 기능 중 양식어업인 컨설팅을 강화하여 현재 정보의 생산·전달 기능과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측 대상을 어류양식의 주요 어종인 참돔, 농어, 송어 등으로 확대하여 정보를 입

6) 정부가 시행 중인 출하조절 사업의 하나로 정부와 생산자간 1:1 매칭 펀드 형식으로 운용된다. 이 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자율적인 생산량 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체적으로 분석·전달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확대의 필요성이다. 조피볼락의 생산량은 전량 국내수요에 의해 소비되고 있어 수입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큰 실정이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량 일부를 해외시장에서 소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것은 매우 힘든 부분으로 단기간에 어떤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해외시장 조사, 모니터링 등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정협·백은영, “조피볼락의 수급동향과 2010년 전망”, 2009년 어류·굴 양식업 평가대회 자료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 옥영수·이창수, “2008년 조피볼락 입식의향 조사결과와 향후 시사점”, 「주간해양수산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년.
- _____, “조피볼락의 최근 생산동향과 시사점”, 「월간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년.
- 옥영수·이창수·김정협, 「어류양식 생산비 조사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2007년.
- 이남수, “양식 조피볼락의 수급불균형과 소비구조 변화”, 「월간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년.
- _____, “양식 넙치의 유통 및 소비구조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한국수산경영학회, 제37권 제2호, 2006. 9. pp. 61~81.
- 이창수, “조피볼락의 수급동향과 당면과제”, 2008년 어류 양식업평가대회 자료집, KMI수산업 관측센터.
- 이창수·김정협·백은영, “어류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9년 수산전망대회 자료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통계청, 「어류양식현황조사」, 각 년도.
- _____, 「어업생산통계연보」, 각 년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양식어업동향」, 각 호.
- _____, 「어류 수산관측」, 각 호.